

1666년 9월 2일, 英國 런던市의 푸딩레인이라는 골목의 조그마한 빵집에서 일어난 火災가 이웃으로 번져가며 4일간 燃燒끝에 런던市의 4분의 3을 잿더미로 만들고 鎮火되자, 이를 계기로 英國은 政府와 온 국민들이 防災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1889년에는 防災研究所를 正式으로 設立하여 防災研究에 盡力했으며, 이 研究開發은 第2次世界大戰時, 독일 空軍의 爆擊의 效果를 減少시켜, 英國의 重要都市 및 軍수공장을 防護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勝利의 榮光을 가져오는데 決定的 功헌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年前까지만 해도 防災의 不毛地帶였으며, 1973년 5월 15일, 防災機能기관으로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創立 되었으며 올해로서 創立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內務部와 財務部의 關係官들 및 우리 火保全任職員들의 心血을 기울이는 노력으로서 防災機能向上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및 국민들의 財産 보호와 人命被害의 減少를 위해 적지않은 貢獻을 해왔다고 自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日淺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防災後進國隊列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後進隊列 속에서 힘차게 前進하여 국제 防災中進國隊列 속에 끼어 들고, 다시 防災先進國 隊列속으로 跳躍하는 目標達成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目標達成을 위해서 防災試驗所부지를 작년 10월에 買入하고 1985년까지는 이 試驗所의 建立을 끝낼 豫定으로 있습니다.

이와 併行해서 우리 協會는 安全點檢業務도 끊임없이 開發해 나가고 있습니다.

火災安全點檢誌의 發行은 이 機能의 研究開發을 促進시키고, 또 研究開發된 資料를, 關聯된 各 機關과 企業體와 국민들에게 傳播하는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이 點檢誌도 이제 20번제의 發行回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發行回數가 거듭됨에 따라 이 點檢誌는 계속 質的向上을 期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허다한 未開發空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未開發의 空白을 부지런히 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官, 民의 至大한 關心과 마음의 支援이 계속 있어야 하겠고, 우리 火保 任職員들, 特히 이 研究分野를 直接 담당하고 있는 關係任職員들은 全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火保任職員들의 앞으로의 健闘를 빌며, 우리 火保를 聲援해주시는 官, 民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理事長 李大鎔